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신체장식에 관한 연구

이 서 회

건양대학교 의상, 아동학부

인간의 신체란 사회 생활 속에 자신을 직접 투영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를 대변하고, 인간의 발전 정도, 사회의 표현상, 사회적 통제력 등을 말해 준다.

에드문드 리치(Edmund Leach)는 장식행동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강조하였다. 장식행동은 “이성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으나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장식행동은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사회적 관습으로 행한 신체장식과 문신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미적 표현이 모두 다른 형태인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개념과 개인적 경험의 결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에 신체장식 되었던 방법들이 현대의상 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 보고, 현대 패션 작품이 과거 신체장식 방법을 모방하여 새로운 리바이벌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바탕으로 후루겔(Flugel)적 장식성에서 형태적 측면을 고찰하고, 세계 5대 패션쇼를 위주로 신는 패션 전문 잡지인 Collezioni를 대상으로 1997~1998년에 나타나고 있는 자료분석을 하였다.

형태적 측면에서 장식성을 보면 육체장식(Corporeal decoration)과 외부형태의 장식(External forms of decoration)으로 나눈다.

1. 육체장식

- ① 신체상흔 : 피부에 상처를 만들어 생긴 흉터로 무늬를 만든다. 흉터자국은 인간의 외모를 손상하기 보다는 덧붙여져 웅망스러운 표시가 새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문신 : 가장 널리 분포된 장식으로서 실제 의복을 착용한 느낌으로 아름다움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③ 페인팅 :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신체표면과 유사한 것으로 본래의 색보다 좀더 강조한다. 예로 루즈나 연지, 미인점 등이 있다.
- ④ 변형 : 신체의 형태를 변형해서 하는 장식으로서 입술이나 귀 등에 무거운 것을 달아서 변형, 코를 꿰는 것, 전족, 코르셋 등을 들 수 있다.

2. 외부형태의 장식

- ① 수직방향의 장식(Vertical) : 신체의 높이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 것으로 수직적 장식은 힘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② 면적적 장식 (Dimensional) : 착용자의 양적효과 즉 옷을 입은 크기의 강조를 말한다. 19세기의 크리놀린, 남자의 어깨 패드 등, 복식을 통해 신체 연장의 효과를 얻었다.
- ③ 원형 장식 (Circular) : 신체의 등근 부위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허리나 팔목, 다리, 손가락 등에 고리로 장식한다.
- ④ 방향적 장식(Directional) : 방향감을 나타내는 장식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모자의 깃털, 한복의 고름 등이 있다.
- ⑤ 재봉에 의한 장식 (Sartorial) : 재봉기술로 장식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슬래쉬 (slash)나 한복의 회장 저고리 등이 있다.
- ⑥ 부분적 장식 (Local) :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장식이다.

원시시대에 있어서 장식에 대한 시초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장식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발견된다. 장식은 형태의 강조이며, 대상의 재현이라는 일반예술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형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선행되어 있으므로, 육체장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대 패션에도 원시적인 장식의 표현형태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 신체장식은 과거 그대가 아닌 새로운 거듭남을 의미하며, 현대패션 디자인 활용 가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년도나 10년 단위의 시간적 흐름에 따르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